

(붙임)

# 안 내 흥 보 물



## 기린기 麒麟旗

Flag with a Design of a *Qilin*

조선시대 | 비단에 채색 | 가로: 198cm, 세로: 233cm

조선시대 왕세자, 왕세손이 행차할 때 의장군이 들었던 깃발이다. 기린은 예로부터 성품이 온화하고 어질어서 실마 있는 별래를 많지 않으며 분이나는 풀을 먹지 않는다 하여 '성군후후'를 상징하는 동물로 여겼다. 왕실에서는 기린을 왕위 계승자인 세자를 나타내는 상징으로 사용하였다.

기린 도상은 말, 사슴, 용의 모습으로 표현되어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양상을 보인다. 우리 박물관이 소장한 기린기의 기린 도상은 조선시대 왕실 유물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전형적인 형태이다. 노루 몸통에 용의 얼굴과 비늘을 가졌고, 소의 꼬리와 유사하지만 말발굽이 있으며, 뿔과 갈기가 있다. 이러한 모습은 1892년 고종을 위한 간치물 기록인 『전한의궤』에 기린기 도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기린기는 약 3m 길이의 대나무에 끈으로 묶어 데달았다. 깃대 끝에는 기수의 허리나 어깨에 고정할 수 있는 보조 도구인 봉지동(鳳趾洞)을 끼워 깃발의 무게를 지탱했다. 기수는 총 세 명으로, 한 명은 깃대를 잡고 다른 두 명은 깃대에 연결된 끈을 잡고 함께 이동했다. 비가 올 때에는 깃대를 찌르는 우비(雨衣)가 있었으며,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청색 번 보자기에 싸서 보관하였다. 기린기는 조선시대 왕세자 행차에 사용된 22종 35개의 의장물 중에서 왕세자 의장에서만 사용된 특징적인 깃발로, 성군이 다스리는 태평성대를 기대하는 마음이 담겼다.

This flag was carried by the royal guards during the procession of a crown prince or his eldest son during the Joseon Dynasty. Since ancient times, a *qilin* was considered to represent a sage ruler and was applied as a symbol for the crown prince as the successor to the throne. A flag bearing a *qilin* embodies wishes for an era of peace and prosperity governed by a sage ruler.



해당 유물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국립고궁박물관 누리집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www.gogak.go.kr](http://www.gogak.go.kr)



# 사진 자료

